

KB 지식 비타민

: 국내외 핀테크(fintech) 동향과 전망

- 핀테크의 개념 및 투자규모
- 국내외 핀테크의 추진 동향과 특징
- 핀테크의 향후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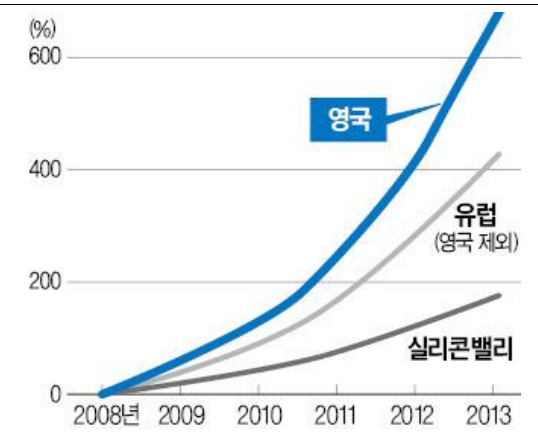


최근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(fintech=financial+technique)의 투자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주요국의 은행들은 독자 생존, 또는 IT업체와의 인수·제휴에 나서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음. 국내 은행권에서도 카카오 등 IT업체와의 제휴가 본격화됨으로써 조만간 새로운 연계 서비스가 가시화될 예정이며, 금융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

■ 핀테크의 개념 및 투자규모

- 핀테크(fintech)는 금융(financial)과 기술(technique)의 합성어로 모바일결제·송금·개인자산관리·클라우드펀딩 등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을 의미
 - 금융 서비스와 관련한 소프트웨어를 새롭게 만들거나 운용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모든 기술적인 과정을 포함하는 의미
 - 의사결정, 위험관리, 포트폴리오 재구성, 준법관련 업무, 성과관리, 시스템 통합, 온라인 이체와 지불 등 금융기관 업무 전반에 영향을 주는 기술들을 총칭
- 지난 5년간(2008년~2013년) 전 세계 핀테크 투자 규모는 3배 이상 성장할 만큼 금융과 정보기술(Information Technology: 이하 IT)의 융합이 빠른 속도로 진행
 - 액센츄어(2014.4)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핀테크 벤처에 대한 해외 투자금액은 2008년 9억 2,000만 달러에서 2013년 29억 7,000만 달러로 증가
- 특히, 글로벌 금융허브에 해당하는 영국이 ‘핀테크’ 스타트업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투자금 집중
 - 지난 5년간 영국과 아일랜드의 핀테크 스타트업에 총 7억 8,100만 달러의 투자금이 몰려 600% 이상의 성장률 기록
- 핀테크기업(IT업체)은 IT의 발전에 힘입어 기존 금융권 업무를 빠른 속도로 잠식해 지급결제·대출·투자중개 등 금융 서비스 업무를 제공함으로써 새롭게 주목 받는 추세

[그림 1] 핀테크 투자규모 성장률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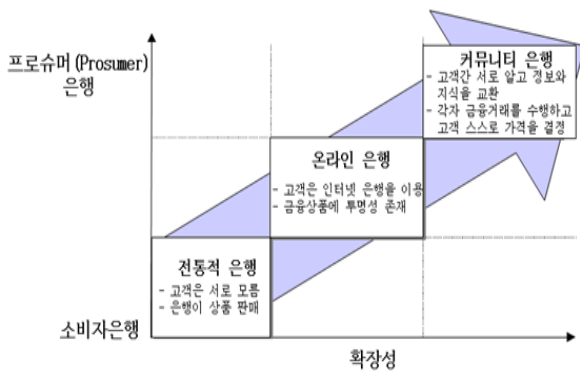
자료: Accenture(2014.4), FT(2014.4)



■ 국내외 핀테크의 추진 동향과 특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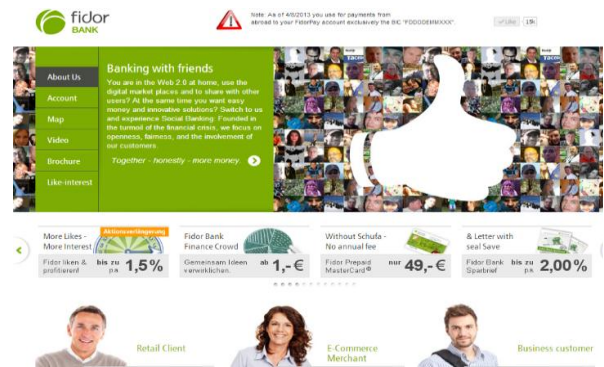
- 최근 독일과 포르투갈, 프랑스의 주요 은행들은 타국에 비해 금융관련 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, 독자적으로 ‘핀테크(Fintech)’를 활용한 금융관련 자체 서비스 시행
- (독일 사례) 2009년에 설립된 독일의 피도르(Fidor)은행은 IT를 접목한 혁신적인 온라인 은행으로 자체 홈페이지와 온라인 매체(페이스북·트위터·유튜브·구글 등) 등을 활용, 독자적인 금융 서비스 제공
 - 동행의 특징은 고객이 프로슈머로서 활동하는 ‘커뮤니티 은행’이라는 데 있음
 - 동행 홈 페이지에는 신상품 아이디어와 기존상품에 대한 평가, 재테크 상담과 조언 등에 대한 고객들의 글이 수 천건 게재
 - 특히, 고객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 질문 시 10센트, 다른 사용자에게 조언 시 25센트, 상품제안 선정 시 100유로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 운영
 - 신규고객은 페이스북 커넥트(connect)를 통해 계좌를 신청할 수 있으며, 페이스북 계정의 ‘좋아요’ 클릭 수가 1,000회 늘어날 때마다 고객의 예금금리도 0.1%p씩 상승하는 등 독특한 소셜 커머스 시스템 구축

[그림 2] 프로슈머 은행으로서의 피도르 은행



자료: Kröner (2009)

[그림 3] 피도르 은행의 홈 페이지



자료: www.fidor.de

- (포르투갈의 사례) 포르투갈의 최대은행인 밀레니엄 BCP는 ‘액티브뱅크’라는 자회사를 설립, 도시 거주 젊은 고객층을 주 타겟으로 한 금융서비스 제공
 - 동행은 우월한 가격경쟁력 및 정밀한 상품구조를 강점으로 내세워 IT기기를 능숙하게 다루고 자기주도형 서비스를 선호하는 젊은 고객층 유인에 성공
 - 동행은 디지털 은행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오프라인 지점을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최소 숫자(14개)로 진출, 그 외관 역시 은행다운 느낌이 들지 않도록 설계



- (프랑스 사례) BNP파리바는 모바일 전용은행을 통해 자체 금융 서비스 제공
 - BNP파리바는 지난해 ‘헬로뱅크’라는 모바일 전용은행을 개설, ‘모바일로 태어났다’는 슬로건을 내걸고 모든 서비스를 모바일 환경에서 제공해 젊은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
 - 계좌번호 대신에 휴대폰 번호나 QR코드를 사용하고 트위터를 통해 고객의 불편사항에 신속하게 대응

[표 1] 핀테크를 활용한 금융관련 자체 서비스 시행사례

은행	내용
피도르 은행 (독일)	- 오프라인 지점망 없이 자체 홈페이지와 온라인 매체 (페이스북·트위터·유튜브·구글 등)를 적극 활용 - 고객이 프로슈머로서 활동하는 ‘커뮤니티 은행’
밀레니엄BCP (포르투갈)	- 디지털은행 (액티보뱅크) 설립, 금리 경쟁력으로 도시 젊은층 공략
BNP파리바/바클레이즈 (프랑스)	- BNP파리바: 모바일 전문은행 (헬로뱅크) 설립, 계좌번호를 휴대폰번호 등으로 대체 - 바클레이즈: 전화번호와 QR코드 등으로 송금 및 결제를 할 수 있는 Pingit 서비스 제공 ○ 메신저 화면처럼 유저 인터페이스 (UI)를 구성해 편의성 제고, 터치페이 등 단순 송금뿐만 아니라 해외 송금·결제 등의 금융서비스도 시행
방코 브라데스코 (브라질)	- 로봇이 인사하고 지문인식으로 자동화기기 (ATM)에 접속할 수 있는 지점 개설

자료: 서울경제신문(2014.7.3)과 조사자료 등을 토대로 재구성

- 영국과 미국 등의 주요 금융회사들은 모바일 등 신규 사업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유망 핀테크기업, 또는 인터넷 전문은행과 제휴하거나 인수를 추진

- (영국 사례) 영국의 주요은행들은 핀테크기업과 제휴하여 좀더 진화된 금융관련 서비스 추진
 - 영국의 HSBC와 First Direct, Nationwide 등의 은행들은 핀테크기업인 Zapp와 제휴하여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모바일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 제공

[그림 4] 기존 결제와 Zapp 결제 프로세스



자료: Zapp



- **(미국 사례)** 미국에서는 금융그룹이 IT업체와의 제휴를 통해서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시도 단행
 - 미국의 금융그룹 캐피털 원(Capital One)은 네덜란드의 인터넷 전문은행인 ING 다이렉트(ING Direct)를 인수하여 지점 없이 온라인으로만 영업
 - 온라인 상에 ‘Orange Cafe’를 설치하여 고객과의 친밀감 형성을 통해 은행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

[표 2] 핀테크기업 등과의 제휴·인수에 의한 금융 서비스 추진사례

은행	내용
HSBC/First Direct/Nationwide (영국)	- 핀테크기업인 Zapp와 제휴하여 모바일 결제시스템 도입 ○ 기존의 모바일 결제 시 필요한 이름·카드 및 CVV번호·유효기간 등의 정보 입력 대신 5자리 비밀번호만 입력
Capital One (미국)	- 인터넷 전문은행 ING Direct(네덜란드) 인수(2012) ○ 온라인 상에 ‘Orange Cafe’를 설치, 고객과의 친밀감 형성을 통해 은행의 브랜드 가치 제고

자료: 우리금융연구소(2014.7)와 KDB 산업은행 보고서(2014) 등을 토대로 재구성

- 한편 일부 국가에서는 IT업체가 은행의 서비스를 대행하는 수준을 넘어 민간은행¹까지 설립
- **(중국 사례)** IT업체인 알리바바는 지난해 6월 온라인 전용 머니마켓펀드(MMF) 상품 ‘위어바오’를 출시, 올 3월 기준 5,000억 위안(약 82조원)의 수탁액 달성
 - 알리바바는 중국 최대 온라인 마켓인 자회사 ‘타오바오’에서 거래하는 중국 사업자 40만명에게 소액대출사업까지 확장

[표 3] 알리바바의 대출 심사 시 빅데이터 활용사례

	내용
빅데이터 수집	- (정형 데이터) 전자상거래 사이트 내 거래량, 재구매율, 만족도 등 - (비정형 데이터) 판매자·구매자간 대화이력, 구매후기 등 - (외부 데이터) SNS·포털 등의 데이터 확보 및 내부 데이터 연동
빅데이터 분석·활용	- 데이터 분석가를 포함해 150여명의 전문 IT인력 운영 - 신청자의 대출상환 능력·의지의 정량적 도출 및 적격여부 판단

자료: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2013.7), 알리바바 보도자료 등

- **(한국 사례)**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높은 규제장벽으로 은행 시스템과 IT와의 융합이 느리게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카카오톡 등 IT업체의 금융업 진출에 위협을 느낀 국내은행들이 IT업체² 제휴를 본격화하는 양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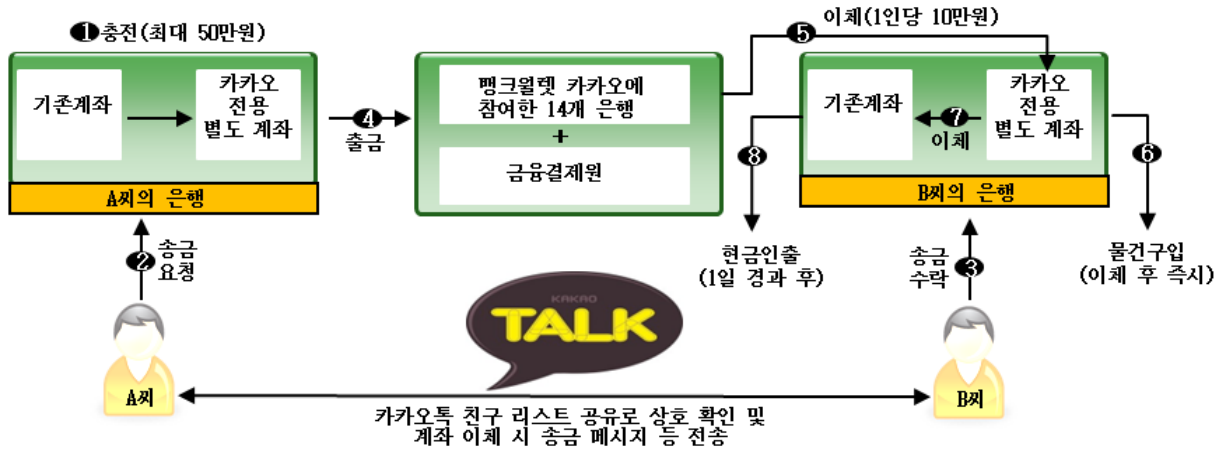
¹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회사인 ‘알리바바’와 중국에서 가장 많은 가입자를 거느린 메신저 프로그램 ‘큐큐(QQ)’를 만든 ‘팅션’ 등 IT기업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은행 사업자로 선정

² 국내 법규상 비금융기관의 독자적인 금융업 진출은 사실상 봉쇄되어 있어 카카오톡, 비바 리퍼블리카와 같은 IT업체는 은행권과 연계된 초기단계의 서비스 제공



- 14개³ 국내은행들은 지난 6월 IT업체인 카카오와 제휴, ‘뱅크월렛 카카오(일명 카톡은행)’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⁴
 - 카카오톡 친구 리스트에 있는 사람에게 하루 최대 50만원까지, 1인당 10만원 씩 송금할 수 있으며, 뱅크월렛 카카오로 받은 돈은 별도계좌로 입금되고 직접 물건 구입도 가능

[그림 5] ‘뱅크월렛 카카오’ 결제 흐름도



자료: 한국경제신문(2014.7.22) 편집, 인용

핀테크의 향후 전망

- 우선, 국내은행들은 글로벌⁵ 및 내부 IT업체의 국내 금융업 진출 확대에 의해 향후 종전 방식에서 벗어나 고객들의 일상생활을 하나로 통합하고 새로운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변화 모색에 나설 전망
- 은행권의 대표적인 영업공간인 오프라인 영업점은 신기술과 상품의 테스트 및 브랜드 마케팅 효과를 유도하기 위한 컨셉(concept) 중심의 영업점 형태로 변화할 가능성
 - 특히, 일부 은행들은 전통적인 영업점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핀테크기업을 제휴·인수하는 등 새로운 연계서비스 제공에 나설 전망
- 또한, 향후 국내 IT업체 등 비금융기관의 급격한 시장점유율 확대 가능성은 낮으나 이들은 지급결제분야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지속 강화할 전망
- 2013년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는 전년대비 건수기준 4%, 금액기준 16% 증가

³ 14개 카톡은행 참여사는 국민·우리·농협·외환·기업·SC·씨티·부산·경남·광주·대구·전북·제주·수협은행임

⁴ 2014. 7. 31 현재 금융감독원 IT감독실에서 보안성 심사가 진행 중임

⁵ 하나은행은 현재 아마존(미국) 및 알리바바(중국)와 제휴, 한국인 대상 해외 소액송금(건당 천달러, 연간 만달러 한도) 서비스와 중국인의 한국 온·오프라인 가맹점 내 위안화 직접 결제서비스를 시행



- 2013년 은행 송금시장에서 10만원 이하 비중이 최대 30% 수준에 이르고 있어, 향후 보안성 심사가 마무리되면 소액송금에 특화된 카카오 등 IT업체의 점유율 확대 예상
- 게다가, 금융상품의 비교 및 선택, 자금 조달 및 결제 등 은행의 일정 서비스 영역에 대해 고객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,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전망
- 소셜 네트워킹, 모바일, 클라우드 컴퓨팅, 빅데이터와 애널리틱스 등을 이용해 고객들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신규고객군 발굴 기대
- 이런 점에서 독일 피도르 은행과 같이 고객들의 페이스북을 활용한 금융정보 교류 및 서비스 공유방식에 대해 국내은행권의 도입 가능성 예상
- 아울러, 현재 해외 주요국에서는 IT업체의 금융업 진출을 허용하고 있어, 이러한 흐름이 향후 국내 IT업체의 금융업 진입 규제 철폐에 압력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
- 유럽과 중국, 일본 정부는 현재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경쟁을 통한 금융시장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IT업체의 금융업 진출을 적극 허용하는 상황

[표 4] 주요 해외 비금융기관의 금융업 진출 규제 내용

국가	내용
유럽	- 패스포팅(passporting)규정 ⁶ 에 따라 EU 중 한 국가에서 금융업 허가 시, EU 전체에서 금융업 수행 가능
중국	- 금융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정부 차원에서 정보통신기술(ICT)기업을 포함한 비금융기관의 금융업 진출 장려 - 최근 국영은행들이 비금융기관의 금융업 진출 규제를 촉구했으나 정부는 ICT기업을 포함한 주요 기업에 대해 민영은행 설립 시범 사업권 부여
일본	- 비금융기관의 금융업 진출이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운영

자료: 월간 마인더스(2014.6)

- 이와 함께, 최근 해외 주요국에서 ‘인터넷 전문은행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’는 점에서 국내에서도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
-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따른 본인 확인절차 관련 보안이슈 해결 및 전문특화은행의 정착방안 등에 대한 감독당국의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존립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

<선임연구위원 이기송(kesolee@kbf.com) ☎2073-5732>

⁶ 패스포팅 규정은 유럽연합과 유럽경제지역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회원국 한 나라에서만 금융서비스업 허가를 얻으면 이 공동체 전역에서 자유롭게 지점을 내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